
친절함은 얼굴에,
거만함은 사직서에

2020 M1 | 동동

친절함은 얼굴에,
거만함은 사직서에

제 프로젝트는 자퇴서 디자인입니다.

제가 자퇴하면서 겪었던 부정적인 시선과 느낌을 개선해보려고 합니다.
단순 캠페인으로 끝날 프로젝트가 아닌 자퇴서를 넘어 사직서까지
적용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1. 자퇴하면서

- ✓ 뭐지, 이 기분
- ✓ 나만 그랬을까?

2. 어쩌다 디자인

- ✓ 어쩌다 디자인
- ✓ 설문조사
- ✓ 좋은 문서 기본원리 29
- ✓ 어디서 봤는데..?

3. 고군분투

- ✓ 만들어보자!
- ✓ 같고 닮고

4. 더 나아가

- ✓ 사직서 연구
- ✓ 협업 시도

뭐지, 이 기분

바야흐로 2019년,
나는 고등학교에 다니던 평범한 학생이었다.
우리 학교는 인문계 특성상 입시에 목메는 분위기였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려 대학에 가고 싶었고
하루의 절반 이상을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생기부를 위한 진로특강이 있었다.
PD분이 오셨는데, '뭐가 된 사람은 그렇게 되게끔 살았다' 라고 하셨다.
나는 거기에서 감명을 받고, 거꾸로 캠퍼스를 알아본 다음 자퇴를 했다.

하얀 종이 위에 검은 글씨, 자퇴서가 제 앞으로 왔네요.
내 이름과 사인란 밖에 없는 행함.
이 종이에 몇 번 끄적이면 내가 반평생을 다녔던 학교를 나갈 수 있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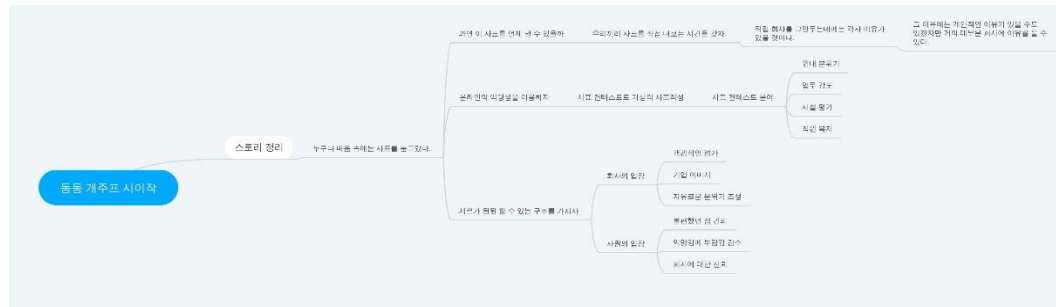
분명 나를 위한 선택인데, 반대로
인생이 끝날 것 같다는 느낌과 허무함이 밀려왔다.

나만 그랬을까?

찝찝했던 자퇴를 마치고 나서
우리나라에 예상치 못한 더 찝찝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다.
전국적으로 등교가 늦어지고 교육부가 횡설수설할 때
우리 학교는 미래인재 육성학교에 걸맞게 온라인 개학을 했다.

그렇게 수업을 듣고 자연스럽게 개인 주제 프로젝트와 마주했다.
처음 주제를 정하는데 너무나 막막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모두가 같은 과정을 거쳤던 주제. 바로 ‘자퇴’가 생각났다.

내가 자퇴하면서 느꼈던 찝찝함과 공허함에 공감할까?
그 느낌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고민에 고민했다.



초기 마인드 마이스터 정리본

어쩌다 디자인

평소 디자인에 관심 있어했고, 자퇴서의 허무함을 디자인적으로
풀어내면 어떨까 궁금했다. 이번 개인주제프로젝트를 통해
나의 능력을 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의 목표는 자퇴서 디자인으로 처음 자퇴서를 접하는 이에게
한눈에 보기 편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을 통해
심적인 부담을 줄이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더 나아가 사직서까지 만들어보아
실제로 적용해보는 단계까지 확장해보려고 한다.



최종 마인드 마이스터 정리본

설문조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설문조사

내가 이해하는 자퇴서는 차갑고 쌀쌀맞은 느낌이었는데
혹시 나만의 생각이었는지, 잘못하고 있는 내용은 없는지 궁금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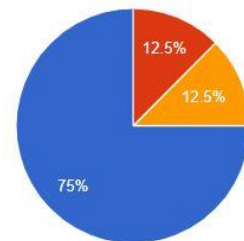
그래서 자퇴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과
내가 만든 자퇴서 디자인에 대해 설명하고 실제로 사용할건지
수요를 알아보는 질문을 만들어 설문을 뿌렸다.

총 34명이 응답해주었고 다양한 의견과 피드백을 받았다.
긍정적이고 정성스레 대답해준 분들도 계셨지만
몇몇은 날카롭게 답하거나 점만 찍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었다.

항상 느끼는데 익명이라는 수단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칼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 것 같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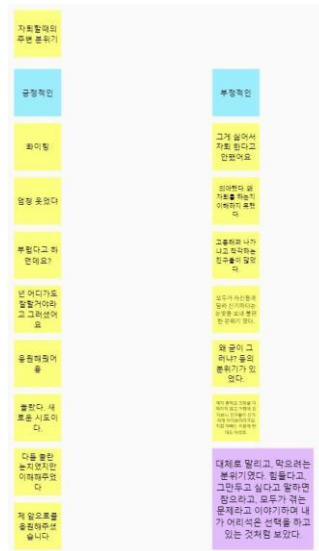


자퇴를 떠올리면

- 새로운 시작이라고 느낀다
- 도망가는 것이라고 느낀다
- 뭔가 잘 안맞았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자퇴 시 주변 반응

한 표 차이로 긍정적인 답이 많았다.
하지만 부정적인 답이 나에게 더 와닿았다.
“대체로 말리고, 막으려는 분위기였다. 힘들다고,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면 참으라고,
모두가 겪는 문제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았다.”



설문조사

그 응답을 본 나는 마음이 아파졌다.

나랑 상황이 너무나 똑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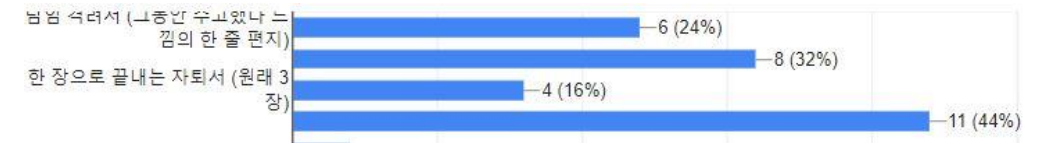
설문 전에는 나와 같기만을 바랬는데, 막상 설문을 보고나니 생각이 많아졌다. 나를 포함한 모든 자퇴생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상처를 보여주지 않는 세상이 야속하기만 했다.

자퇴서 한 장으로 선을 그어버리고, 응원해주기는 커녕 사회에 일찍 나온 철없는 애 취급을 하는 이 어른들의 문화가 너무나 속상했다.

‘이들의 상처를 만연에 방지하고 조금이라도 용기를 심어주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안한 자퇴서 뒷 페이지 ‘응원할게’ 는 학교에서 자퇴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응원하고 기억하겠다고 격려해주는 롤링 페이퍼의 개념이다.

설문조사

자퇴서에 추가되었으면 하는 항목 랭킹



- 1위. 자퇴에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문체, 글씨체의 차가운 느낌 개선 (11명)
- 2위. 반 친구들의 롤링 페이퍼 (8명)
- 3위. 담임 격려서 (그동안 수고했다는 의미) (6명)

결과물 수요조사

디자인이 적용된 자퇴서 / 사직서 가 나온다면 쓰실 의향이 있나요?

응답 34개



절반 이상이 나의 디자인을 사용하겠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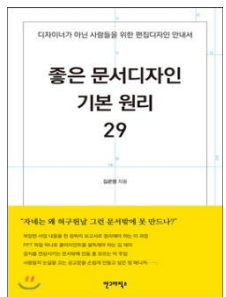
좋은 문서디자인 기본원리 29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프로젝트인 것을 확인했다.
본격적으로 디자인 이야기를 해보겠다.

처음 디자인을 계획할 때 완전히 예술적인 요소만 생각하고
젊은이들이 좋아할만한 이벤트 형식의 청첩장 느낌으로 가려고 했다.
그래서 작업 프로그램도 디자인 프로그램을 사용하려고 공부도 했다.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프로그램 작동이 잘 안되고 기능을 익히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미루고 미루다가 다시 생각해보니

이 '문서'는 실제 기관에서 행정적으로 쓰이는 용도이고,
내가 아는 디자인과는 분야가 달랐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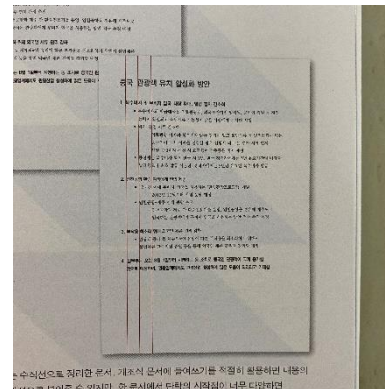
출처 : Yes 24

그래서 나는 디자인의 분야를 예술적 디자인에서
문서 디자인으로 바꿨다. 처음 접해본
나는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겠다 싶어 초보자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좋은 문서디자인 기본원리 29'
책을 고르게 되었다.

좋은 문서디자인 기본원리 29

1. 상대방의 입장에서 만든다.

이 책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모든 문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만들어야 보기에, 이해에도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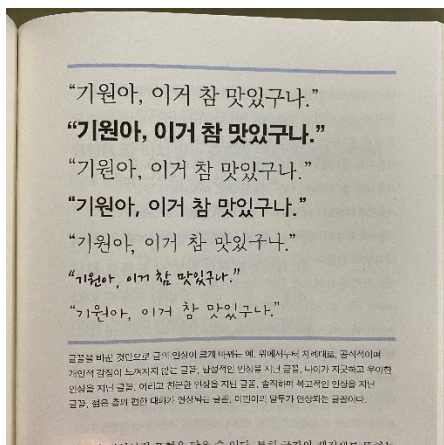
상대방의 입장에서 만드는 방법 중 하나는
보이지 않는 수평선과 수직선을 이용해
사진 찍을 때처럼 구도를 맞추는 것이다.

이를 통해 문서의 무게감을 맞출 수 있어
읽는 사람에게 시각적인 안정감을 준다.

좋은 문서디자인 기본원리 29 - 91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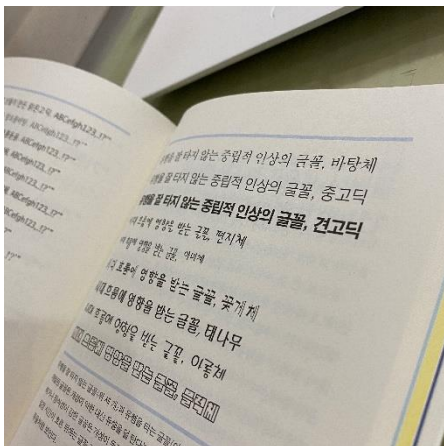
좋은 문서디자인 기본원리 29

2. 글꼴이 문서의 분위기와 내용을 정한다.



이 사진은 같은 문장임에도 글꼴에 따라 느낌이 달라진다는 걸 보여준다.

글꼴만으로 충분히 문서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고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각 글꼴의 느낌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어떻게 구하는지, 이 글꼴이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지 등등 다양한 정보를 알려준다.

좋은 문서디자인 기본원리 29

다시 정리해보자면

1. 상대방의 입장에서 만든다.

2. 구도를 통해 문서에 안정감을 준다.

3. 글꼴이 문서의 분위기를 정한다.

책을 읽으면서 다양한 개념과 원리를 봤지만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이를 가지고 자퇴서를 디자인할 때 사용했다.

어디서 봤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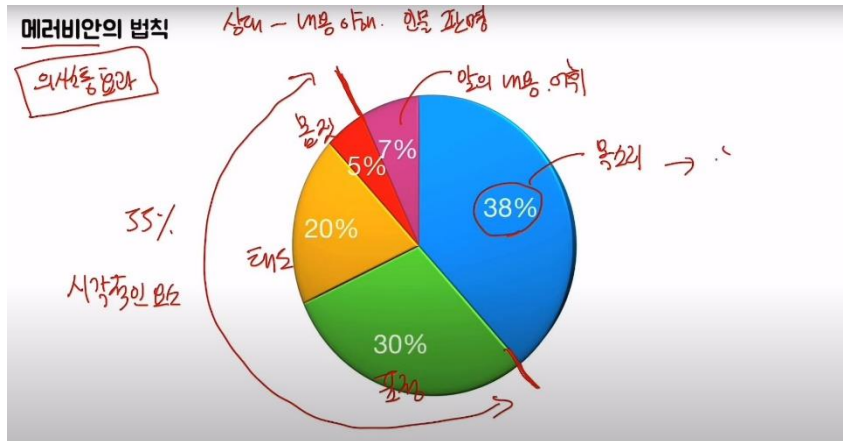
수선의 국어 시간 때 말하기의 표현방식을 배웠다.

언어적 표현, 반 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을 배웠는데

여기에서 메러비안의 법칙이라고, 상대방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시각적인 요소가 전체의 55%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는 내용을 보고 이해하는데 있어서 시각적 요소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자퇴서를 만들 때 시각적인 요소를 고려해 쓰는 입장에서 불편한 느낌이 없도록 만들었다.



수선의 2020 M1 국어 2차시 디딤영상

만들어보자!

먼저 기존의 자퇴서를 보겠다



처음 봤을 때 보이는 넓은 면적이 행한 느낌이다.

또 딱딱한 느낌의 글꼴이라 더욱 차가운 느낌이 들고 감정이 하나도 없다.

자세히 보면 같은 양식에 제목만 다른 3장이다.

폰조에게 받은 자퇴서 양식

만들어보자!

자 퇴 원 서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위 학생은 ()의 사유로 자퇴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학 생
보 호 자

000 고 등 학 교 장 귀 하

실선을 그려 구도를 보았을 때도
기준선이 여러 곳에 위치해 있다.
이는 문서의 통일감을 주지 못하고
글을 읽기 불편해진다.

이렇게 원리를 적용해보니
공식적으로 쓰이는 문서임에도
문제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원리를 모르고 본 나는
이것이 자퇴 자체가
불편하다고 느껴졌던 기억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원리를 적용해 자퇴서를 리모델링 해보자!

만들어보자!

준비물

사람냄새 나는 글꼴 / 안정감 있는 구도 / 간략함
내가 만들 자퇴서의 준비물이다.

사람냄새 나는 글꼴

기준을 세우고 찾아보았는데, 첫 번째로 가독성 좋은 글꼴,
두 번째로는 글꼴에서 사람이 직접 말하는 느낌이 나는지,
마지막으로는 문서로 쓸 수 있을 정도의 깔끔함을 갖춘 글꼴이다.

한번에 많은 글꼴을 동시에 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문구를 입력해
미리 모양새를 볼 수 있는 사이트 '눈누'에 들어갔다.

한번에 많이 볼 수 있어서 사람냄새를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만들어보자!

에스코어 드림 (S-Core Dream)

에스코어 드림은 'Dream(꿈)'과 '드리다' 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짝 찬 직사각형 모양에 복고적인 형태에 현대적인 감성을 담았다.

바로 이 글꼴이다. 잘 모르겠다면 원본과 비교해보자.

- ✓ 위 학생은 ()의 사유로 자퇴를 희망하니 허가하여 주십시오.
- ✓ 위 학생은 ()의 사유로 자퇴를 희망하니 허가하여 주십시오.
- ✓ 위 학생은 ()의 사유로 자퇴를 희망하니 허가하여 주십시오.

셋 중 가장 위에 있는 글꼴이 가장 귀엽고 깔끔하지만
 문서에는 적합하지 않은 느낌이 나고, 가장 밑에 있는 글꼴은
 너무 굳어있는 느낌을 준다. 가운데에 위치한 에스코어 드림이 가장 적합하다.

만들어보자!

성 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학년 반	
주소	
전화번호	

안정감 있는 구도

인적 사항을 적는 부분 또한 정돈되지 않은 느낌이다.
 이런 경우는 표로 한번에 맞춰주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이다.

나는 표를 조금 더 간결화시키기 위해 세로 선을 없애고
 가로선끼리의 명도차이를 주어 확실히 분리 되어있다는 느낌을
 만들었고, 무게감도 있어 보여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안정감 있게 잡아주는 시각적 무게 추의 역할을 해준다.

만들어보자!

간결함

제목만 다르고 나머지 내용이 같던 3장의 자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직접 일을 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사인을 받으러 다니는 학생의 입장에서 한 장으로 모으는 것이 간편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종합 자퇴서라고 이름을 붙였다.

학부모, 담임, 학생의 사인란을 한 곳에 모았고

자퇴 사유도 한번에 모으고, 날짜와 함께 인적 사항도 하나로 모았다.

만들어보자!

종합 자퇴서

20XX년 XX월 XX일

보호자 ☐
학생 ☐
담임 ☐

위 학생은 ()의 사유로 자퇴를 희망하니
허가하여주세요.

성명			
생년월일			
학년 반			
주소			
전화번호			

00고등학교장귀하

최종본

준비물을 모두 모아본 완성작.

한눈에 들어오고

전과는 다른 안정감,

글꼴에서 오는 따듯함.

그리고 간결하게

한 장으로 끝낸 자퇴서.

같이 읽고

이제는 자퇴서 뒷면에 추가할 내용인 '응원할게' 페이지를 만들어야 한다.

좀 더 서사적인 느낌을 연출하려고 다른 폰트를 적용해봤더니
역시 가독성이 문제였다. 또한 앞의 분위기와는 달라 이질감을 느꼈다.
이 페이지도 동일하게 사람이 말하는 듯한 폰트 '에스코어 드림' 을 사용,
안정감 있는 배치, 심플함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는 디자인보다 '응원할게' 가 담고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
다시 정리하자면,

학교의 입시 분위기 때문에 사적으로 신경 써주지 못했던
감정적인 부분을 다루어 인간적인 느낌과 함께 이 학교의 일원이었다는 것을
상기시켜줌으로써 소속감을 다시금 불러일으켜주고,
일반 자퇴서에서 담지 못했던 감정적인 부분을 담았다는 것이
이 페이지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같이 읽고

자퇴서 디자인 최종본

종합 자퇴서

20XX년 XX월 XX일

보호자

학생

담임

인

인

인

위 학생은 ()의 사유로 자퇴를 희망합니다.
허가하여주세요.

성명

생년월일

학년 반

주소

전화번호

00고등학교장귀하

응원할게

학교 밖을 나가서 지낼()를 위해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보여주세요.

담임의 말

친구들의 한마디

사직서 연구

사실 자퇴서는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다.

교육청에서 내려준 양식 그대로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임의로 바꿔서 제출한다면 행정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법을 어긴 것이다.

이 좋은 아이디어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퇴서와 비슷한 느낌을 찾다가 어른들의 자퇴서인 사직서에 초점을 뒀다.

사직서는 정해진 폼이 없기 때문에 요소만 갖추면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하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는 양식이 아니라면

충분히 내가 만든 사직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의 현실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제 퇴사 경험이 있는 분에게 인터뷰를 해보았다.

사직서 연구

다시 시작된 인터뷰

인터넷에 올라와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부당한 대우, 보수적인 분위기 때문에 퇴사했다는 얘기가 대부분이다.

내 주변에 퇴사 경험을 가진 분이 없어서 현실의 퇴사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실제 분위기와 퇴사 이유, 절차 등을

알아보고 난 뒤에 사직서를 만들면 더 현실감 있고

적용가능성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싶었다.

인터뷰의 내용은 이러하다.

1. 어떤 이유로 퇴사 하셨나요?
2. 퇴사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나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나요?
3.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4. 실제 퇴사하면서 어떤 절차를 밟았나요?
5. 퇴사자라는 타이틀이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사직서 연구

인터뷰 결과

퇴사 이유

1. 출산 2. 결혼 3. 삶의 비전과 맞지 않음

퇴사과정

대부분 특별한 과정은 없이 상사에게 보고하고 사직서 작성

주변사람들의 반응

잘했다, 부럽다, 그동안 고생했다.

퇴사자라는 타이틀이 본인에게 미친 영향

1. 날개를 달아주었음
2. 할 일이 없어서 걱정
3. 수입이 없어서 걱정
4. 육아로 장기간 경력 단절과 재취업 걱정

사직서 연구

의외의 결과

퇴사의 이유가 이렇게 다양할지 몰랐다.

자퇴의 분위기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나의 생각이었다.

실제로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했고 대부분 어쩔 수 없이 퇴사했다.

본인의 선택이 아닌 다른 이유로 퇴사한다고 생각해보니,

출산과 결혼이 가장 많이 나온걸 보면 설문의 응답자가

여성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어른의 세계구나.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렇다면 내가 만들었던 자퇴서와는 분위기가 다르게 가야겠구나’

초점을 다른 곳으로 두기로 했다.

기존의 사직서도 마찬가지로 차가운 느낌과 행함이 있다.

자퇴서보다 더 차가운 느낌의 문체, 글씨체였고 구조도 훨씬 간단했다.

심지어 구도도 완벽히 네모난 모양이라 어떤걸 건드릴까 고민했다.

사직서 연구

해외 유명기업의 분위기는 어떨까?

그렇다면 다른 회사는 어떤 느낌일까?

해외 유명 기업들을 찾아보다가 '넷플릭스'의 사직문화를 접했다.

넷플릭스는 영화 스트리밍 회사다. 자유로운 회사 내 분위기에 맞게 사직문화도 남달랐다. 일명 '회고 메일' 이라고 한다.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1. 왜 떠나는지 : 다른 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2. 회사에서 배운 것 : 새로 배운 것, 경험한 것.
3. 회사에 아쉬운 것 : '넷플릭스가 이랬다면 떠나지 않았을 것'
4. 앞으로의 계획 : 어느 직장에서 어떤 업무를 할지
5. 넷플릭스의 메시지 : 직원을 떠나보내는 넷플릭스의 입장

출처 : T TMIES

사직서 연구

아직 안 끝났다

과연 이런 사직문화가 우리나라 회사에 적용 가능할까.

이것도 물어보았다. '회고 메일' 의 내용을 보여주고 적용 가능성을 물었다.

- 적용가능성은 없을 것 같지만 회사에 아쉬운 점을 알려줄 수 있다면 뭔가 기분이 통쾌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어떤 사유로 퇴사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해외에 비해 개방적이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우엔 100프로 적용하기는 힘들듯

- 회사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적용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퇴사자의 심리적인 부분은 커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사직서 연구

정리해보면

자토와 토사는 유사한 점이 많다.

형한 느낌의 문서양식도 비슷하고

서류에 인적 사항 적고 나가는 형식도

같이 일했던 친구, 동료들 떠나야 한다는 것도 같다.

하지만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퇴사하는 이유가

자투보다 다양하고, 그에 따른 느낌도 다르다는 것이다.

사직서를 디자인할 때 모두를 고려할 점을 찾아보자면

회사에서 일했다는 것과 딱딱한 업무 분위기 때문에

감정적인 부분에 신경 쓰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직서 연구

만들어볼까

기존의 사직서를 보겠다.

<div style="text-align: center;"><u>사 직 서</u></div>			
회 사		직 위	
성 명		생 년 월 일	년 월 일생
입사년월일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주 소			
<p>상기 분인은 년 월 일자포 ()</p> <p>사유로 사직코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인)</p>			

자되서보다는 균형감이 있지만
험한 느낌은 다를 것이 없다.
글꼴에도 감정이 안 느껴지고
그저 '문서'의 느낌밖에 없다.
그래서 감정을 담아볼까 한다.

자퇴서와 같이 전체적인 구조를
조정하고, 글꼴을 바꾸고
뒷면에다가 새로운 내용을 쓸 것이다.

출처 : 서울 세무회계사무소

사직서 연구

같은 옷 다른 느낌

에스코어 드림 (S-Core Dream)

아까 본 그 글꼴이다. 잘 모르겠다면 원본과 비교해보자.

- ✓ 이러한 사유로 사직 코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러한 사유로 사직 코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러한 사유로 사직 코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 중 가장 위에 있는 글꼴이 가장 귀엽고 깔끔하지만
문서에는 적합하지 않은 느낌이 나고, 가장 밑에 있는 글꼴은
회사에서 자주 쓰지만 이것도 감정이 담기지 않은 글꼴이다.
그리하여 가운데에 위치한 에스코어 드림이 가장 적합하다.

사직서 연구

기존의 사직서를 보겠다.

회 사		직 위	
성 명		생 년 월 일	년 월 일생
입사년월일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주 소			



회사	
직위	
성명	
생년월일	
입사년월일	
주민번호	
주소	

간결하고 안정감 있게

표로 먼저 정리해놓은 기본 사직서.

하지만 깔끔한 느낌은 아니다. 칸의 통일성이 없는 느낌이다

자퇴서보다 인적 사항이 더 많아졌다.

역시 어른들이라 그런지 정보가 더 많다.

정보가 많아질수록 처음 봤을 때 복잡해 보일 수 있으니

더더욱 간결함이 필요한 부분이다.

객관식보다 주관식이 더 어려워 보이는 것과 같은 느낌이다.

사직서 연구

더 심플하게

사직서

상기 본인은 20XX년 X월 X일자로 () 사유로 사직코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직역

성명

생년월일

입사년월일

주민번호

주소

20XX년 X월 X일

신청인 : XXX (인)

한눈에 들어오는 구도와
현대적인 감성이 들어간 글꼴까지
스마트해 보이는 문서다.

자퇴서와 실루엣은 비슷하지만
엄연히 내용은 다르다.
자퇴서보다 인적 사항이 많다.
마치 시험문제의
주관식이 어려운 것과 같다.
그래서 더욱 단순화 시켜야 한다.

사직서 연구

미래를 응원합니다.

자퇴서와 마찬가지로 뒷면에다가
회사의 업무 분위기 때문에 사적으로 신경 써주지 못했던
감정적인 부분을 다루어 따듯한 느낌과 이 회사의 일원이었다는 것을
말해줌으로써 회사생활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만든다.

그리고 회사가 고려하지 못한 부분을 피드백으로 삼는다는 것은
본인이 퇴사한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부분을 채워주지 못해
반성하겠다는 의미에서 퇴사자가 느꼈던 부담감을 함께 나누자는 것이다.

일반 사직서에서 다루지 못했던 감정적인 부분을 담았다는 것이
사직서 디자인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사직서 연구

사직서 디자인 최종본

미래를 응원합니다.

(XXX)씨,

우리 회사에서 일해줘서 정말 고맙워요.
당신은 우리 회사의 소중한 일원이었어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일도
잘 풀어나가길 바랍니다.

각자의 사연으로 우리 회사를 떠나지만
늘 우리는 다시 생각해봅니다.

회사의 부족한 점이나 아쉬웠던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사직서

자문 () 사유로 사직권자 하오니
확인 주시기 바랍니다.

20XX년 X월 X일

신청인 : XXX (인)

협업 시도

스승을 찾아

이 사직서를 가지고 퇴사 관련 단체에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으려고 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용 가능성 이라든지 고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얘기하고
더 나아가길 바랬다. 내가 정말로 노력해서 만든
이 사직서를 방치하고 싶지 않았다.

인터넷에 '퇴사자들의 모임', '퇴직 대행 서비스 사직서' 등
퇴사와 관련된 모든 사이트는 다 들어가봤다. 그 중
퇴사자 들의 모임 '니트생활자' 라는 페이지를 발견했고
이곳의 방향성이 나의 프로젝트와 비슷해서
바로 이메일을 보냈지만 지금까지 답이 오지 않았다.

마치며

처음 만들어본 개인주제 프로젝트.

정말 많은 과정을 거쳤다.

살면서 고민을 이렇게 많이 한 적은 없다.

그 덕분에 나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다.

무엇을 할 때 즐거운지, 성취감을 다시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해본 건 처음이다.

나의 이야기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로 뿌듯하고 기쁘다.

좋은 일은 시작할 때 기분이 좋고,

버거운 일은 끝낼 때 기분이 좋다.

이 말로 내 느낀 점을 대신할 수 있겠다.

친절함은 얼굴에,
거만함은 사직서에

Fin.